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전)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할 것.
-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나 불필요한 낙서가 있으면 0점 처리함.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주체를 상정하여 이론을 전개해왔다. 합리적이라 함은 어떤 선택 대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기적이라 함은 그 판단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뿐 타인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된 합리성과 이기성의 가정에 충실한 경제 주체를 경제인 (Homo economicus)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합리성(合理性)과 이기성(利己性)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학에서는 그런 이탈 현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성과 이기성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양식을 배워 나갈 것이고, 혹시라도 이를 학습하지 못하는 경제 주체라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성이나 이기성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탈은 사소하여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경향과 이기적이지 않은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학습을 통해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설령 합리성과 이기성으로부터의 이탈이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조그마한 이탈이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성과 이기성의 가정에 충실해 왔던 기존의 경제 이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 출처 : 최정규, 제목은 출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생략함. -

[나]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등학교 강당에서부터 기업의 총회까지 여러 곳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해왔다. 또한 그곳에 참석한 석학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던 중에 가난한 소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 가난한 사람이 아픈 아이의 약을 사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를 위해 고급의 디지털 TV를 사는 것은 잘못된 경제 행위이다.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전]

- 저소득자가 비싼 물건을 사는 무리한 경제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은 그 물건을 제공한 회사에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이 부유층에 비해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 달치 월급을 모아서 값비싼 핸드폰을 사는 것이 과연 비합리적일까? 만약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면? 세 달치 월급 대신에 한 달치 월급으로 무명 브랜드의 값싼 핸드폰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여러분이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한 것은 어떤가? 무엇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유명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사는 것과 무명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사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질문을 약간 꼬아보겠다. 저소득 소비자는 미적 감각이나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능 위주로만 물건을 사야 하는가? 질문을 더 꼬아보겠다. 기업들은 그런 시장에서 심미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 행위의 합리성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안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지음), 야나 마키에이라 (옮김), 관찰의 힘 -

[다]

우리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뿐만 아니라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소소한 생활이나 이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사는 공간에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펼치고 조언하며, 판단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단지 비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뿐이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례를 들어보자.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짧은 삶을 비극적으로 마친 사건을 둘러싸고 대중들은 그녀가 동화 속의 공주라는 이미지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룩한 사회운동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버킹엄 궁전에서는 다이애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그 행렬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런 일은 전통적으로 금욕적인 영국 사람들에게는 유례없는 일이어서 모두들 그런 현상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자기들이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믿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하면서 대중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대중들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세세한 사생활까지 알고 싶어 했고 그에 따라 파파라치들이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그 결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전]

느꼈다.

대중들은 다이애나의 동화 같은 삶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젖어들었고 심지어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음모 이론에 빠져들었다. 2011년 칸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영화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불법 살인(unlawful killing)>이었다. 키스 앨런이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비는 그녀와 동승했다가 함께 사망한 연인 도디(Dodi)의 아버지이자 이집트 출신 사업가이던 모하메드 알파예드(Mohamed Al-Fayed)가 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영국의 왕실과 엘리트 집단이 꾸민 음모로 다이애나가 살해되었다는 내용만 있지 그에 대한 반론은 없었다. 대중들은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끼면서 슬퍼한 나머지 분노와 비난을 쏟아낼 대상을 찾고 있다. 다이애나의 신화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음모 이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제레미 D. 홀든 (지음), 이경식 (옮김), 제목은 출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생략함. -

[문제 1-1] [가]와 [나]가 기존 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하여 어떤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대조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1-2] [다]를 이용하여 [가]를 뒷받침하는 글을 쓰시오. 단, 다음 순서를 따르시오. [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를 요약한 뒤, [다]의 사례가 어떤 점에서 [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기술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전)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재벌 총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어떤 연예인이 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요모조모 따져서 분석하곤 한다. 이처럼 타인이나 자신의 행위에 관해 인과적 설명에 이르는 과정을 귀인(歸因, attribution)이라 한다.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귀인을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진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론하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하이더(Heider)는 사람들이 행동의 원인을 개인 내부의 특성 요인에 귀인시키거나 혹은 개인 밖의 환경 요인에 귀인시키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여러 학자들은 하이더의 통찰을 정교화하면서 행동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내부 귀인 혹은 외부 귀인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내부 귀인(internal attribution)은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 특성, 능력 및 감정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외부 귀인(external attribution)은 행동의 원인을 상황적 요구와 환경의 제약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한편 와이너(Weiner)는 사람들이 귀인을 하는 데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행동의 기저에 있는 원인들의 안정성을 들고 있다. 안정적 원인은 다소 영속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불안정적 원인은 일시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귀인의 ‘안정-불안정’ 차원을 ‘내부-외부’ 차원과 교차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네 가지 귀인 유형이 만들어진다.

<안정-불안정 차원>

		안정적 원인	불안정적 원인
내부-외부 차원	내부 원인		
	외부 원인		

예를 들어, 행동의 안정적 내부 원인에는 지능 등이 포함되고 행동의 안정적 외부 원인에는 법률과 규칙 등(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금연구역)이 포함된다. 반면에 행동의 불안정적 내부 원인에는 기분과 동기 등이 포함되고 행동의 불안정적 외부



원인에는 날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유사한 원인 설명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셀리그만(Seligman)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 귀인양식, 즉 낙관적 귀인양식 혹은 비관적 귀인양식 중 하나를 취한다. 낙관적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은 좌절을 외부의 불안정적이며 특수한 요인들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소개받은 이성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결과를 전반적인 개인적 단점보다는 당일 미팅에서 만난 특정 상대방의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기분에 귀인할 것이다. 이 양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좌절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자기상을 유지시켜준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귀인양식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직장인들의 직업적 성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비관적 귀인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좌절을 내부의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요인들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서 실패한 뒤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시험에서 떨어졌어.”라고 귀인한다. 이러한 귀인은 자신을 나쁘게 느끼도록 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해 비관적이 되도록 한다. 연구에 따르면 비관적인 귀인양식은 수동적 행동을 조장하기 쉽고,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제 2-1] [가]에 제시된 그림의 모형에 따라, 취업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네 가지 서로 다른 귀인의 예를 들어보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2-2] [가]에 비해 [나]는 ‘특수-전반’ 차원을 귀인에 추가한 것이다. 이 추가된 차원이 낙관적 귀인양식 및 비관적 귀인양식에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차원의 반대 측면(특수⇄전반)을 고려하여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 모범답안

인문계열  
[오전]

[문제 1-1] [가]와 [나]가 기존 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하여 어떤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대조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가]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고 상정하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을 비판하여,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합리성으로부터의 이탈은 사소하여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여, 오히려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경제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가]는 경제 주체의 비합리성을 내세워 기존 경제학의 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나]는, 합리성의 판단 기준이 상황마다 달라서 경제 행위의 합리성을 따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제 행위의 합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는 합리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을 내세워 합리성을 확고하게 상정하고 있는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1-2] [다]를 이용하여 [가]를 뒷받침하는 글을 쓰시오. 단, 다음 순서를 따르시오. [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를 요약한 뒤, [다]의 사례가 어떤 점에서 [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기술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다]는 유명인사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본다. 대중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둘러싸고 슬픔, 상실감에 사로잡혔으며 그 슬픔이 지나쳐서 다이애나가 살해되었다는 음모 이론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감정이 증폭되어 음모 이론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본다.

이렇듯 [다]는 인간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릴 수 있으며 그러한 감정의 진폭이 더욱 커져서 또 다른 사회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 [가]에서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사소한 것일지라도 경제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출처**

- [가] : 최정규, 행동경제학 -경제주체의 선호를 묻다 -
- [나] : 얀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지음), 야나 마키에이라 (옮김), 관찰의 힘 -
- [다] : 제레미 D. 홀든 (지음), 이경식 (옮김), 팬덤의 경제학 -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 모범답안

인문계열  
(오전)

[문제 2-1] [가]의 그림의 모형에 따라 취업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네 가지 서로 다른 귀인의 예를 들어보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취업에 성공한 원인을 내부의 안정적 차원으로 귀인하면 탁월한 자신의 능력이나 원만한 성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내부의 불안정적 차원으로 귀인하면 이력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든가 면접 당일 좋은 컨디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부 귀인 중 안정적 원인으로는 해당 기업의 낮은 입사 기준으로 귀인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불안정적 차원으로는 운이 좋아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귀인할 수 있다.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내부-안정은 능력부족으로, 내부-불안정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귀인할 수 있다. 외부-안정은 입사 조건으로 높은 스펙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불안정 조건으로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거나 나쁜 날씨 때문이라고 실패를 귀인할 것이다.

[문제 2-2] [가]에 비해 [나]는 ‘특수-전반’ 차원을 귀인에 추가한 것이다. 이 추가된 차원이 낙관적 귀인양식 및 비관적 귀인양식에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차원의 반대 측면(특수↔전반)을 고려하여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가]의 ‘내부-외부’ 차원과 ‘안정-불안정’ 차원에 덧붙여 [나]에서는 ‘특수-전반’ 차원이 추가되었다. 낙관적 귀인양식은 좌절 경험을 외부의 불안정적 특수 요인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좌절 경험을 외부의 불안정하며 특수한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으로 귀인한다면(예를 들어, 특정 여성에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여성 전반에게 거절당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자신에 대한 호의적 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비관적 귀인양식은 내부의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요인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좌절 경험을 내부의 안정적이고 전반 차원이 아니라 특수한 차원으로 귀인한다면(예를 들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수학과목에만 적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수동적인 행동이나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